

# 국가·공공기관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힘 모은다”

광주시, ACC서 네 번째 간담회  
나주혁신도시 소재 기관도 참여  
지역문화자산 홍보 등 소통·협력  
강시장 “광주만의 매력 알려달라”

광주시와 지역에 소재한 국가·공공기관이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힘을 모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오후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광주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국가·공공기관장들과의 네 번째 만남의 장을 열었다.

이날 자리는 ‘무더위 식히는 ACC 문화바캉스’라는 주제로 기관장들에게 지역 랜드마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소개하고, 광주시와 국가·공공기관과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및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을 살펴보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피카소 도예’ 전시를 관람했다. 이후 스탠딩 환담 형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적 자산과 기반이 풍성한 광주의 매력을 알리고,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2022년부터 정례화해 국가·공공기관장 소통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문화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김치타운 등 광주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곳에서 주로 개최했으며 광주시와 국가·공공기관과 소통과 협력의 장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30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린 ‘제4차 광주지역 주요 국가·공공기관장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되고 있다.

특히이번 국가·공공기관장 소통간담회는 참여 대상을 기존 광주 소재 국가·공공기관장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장까지 확대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다루는 각 기관의 역할과 현안을 더욱 다양하게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핵심 시설인 ACC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우리의 사명인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시민편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히는 광주비엔날레의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며 “기관별 성격은 다르지만 ‘시민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만큼 맞·맞·의의 도시광주를 알리는데 손을 맞잡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기관에서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빈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 △송성욱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병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장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조종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최혜령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하영훈 광주지방고정청장 △홍승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강재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선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남형우 한국부동산원 호남지역본부장 △이근수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장 △이상용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 △장해준 세계김치연구소장 △정수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차상휘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황인협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 △김기홍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김전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서형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지역 기관에서는 △임택 동구청장 △백남인 서구 부구청장 △김순옥 남구 부구청장 △김기숙 광산구 부구청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춘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참석했고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매일권 기획조정실장, 실·국장 등이 자리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광주시, ‘위안부 피해자’ 추모행사 마련

광주시는 오는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한화공간과 특별전시회를 마련하는 등 시민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8월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로, 이후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해마다 이를 기념하고 있다.

현재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전국에 9명이 생존해 있으며, 광주에서는 2017년까지 한 분이 생존했으나 담양으로 전출해 2019년 3월 별세했다.

광주시는 기림의 날을 기념해 특별전시와 추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8월1일부터 14일까지 전일빌딩 245 시민갤러리에서 ‘기억의 방’을 주제로 특별 전시를 연다.

특별전시는 서양화가 이인혜 작가와 협

업해 ‘위안부 피해자 39인의 초상화’를 작품화했으며 마치 ‘카타쿰베’(고대 기독교의 지하묘소)를 연상케 하는 하나의 방을 만들어 관객으로 하여금 애도와 각성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광주시는 또 14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한화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시청 광장 시민숲 평화의 소녀상 앞에 추모공간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5개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동구는 금남로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화와 기념식을 실시하고, 서구는 서구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화 행사를 진행한다. 남구는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일원에서 기념식, 추모영화 상영,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북구는 북구청 광장에서 청소년 참여 공연,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광산구도 광산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전시회,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를 펼친다.

노병하 기자

## 광주도시공사, 사장·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 사장 및 비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체육시설 관리 등 업무 경력을 갖춘 자 등을 대상으

로 한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8월14일까지이며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을 거쳐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총무팀(062-600-664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왕우렁이 수거·특별관리 강화한다

### 관리대상 인식전환…피해예방 앞장 농업인 교육·유입경로 조사 등 대응

전남도는 벼 생육초기 논 잡초제거에 사용된 왕우렁이를 수거하기 위해 왕우렁이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우심지구 지정 등 특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왕우렁이 농법은 대표적인 친환경농법으로, 이앙 후 5일 또는 씨레질 후 7일 이내에 논 10a당 1.2kg 이내의 왕우렁이를 투입하면 제초제를 사용한 논 잡초방제의 98% 효과가 있다. 노력비와 재료비 감소로 경영비도 일반논가의 10.6%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와 잦은 비로 해남, 진도 등 9개 군에서 왕우렁이가 농경지에 활동해 모내기한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왕우렁이의 생태계 유출 등 방지를 위해 ‘활용의 대상’에서 ‘관리

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왕우렁이 우심지구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월동 실태조사 후 유입경로 파악·차단기술 연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왕우렁이 피해면적 세부조사로 읍면별 우심지구를 지정·집중 관리하며, 월동 왕우렁이 개체수가 증가하면 예방자재 우선 공급 등 적극적으로 대응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인 뿐만 아니라 관행 농업인을 대상으로 왕우렁이 활용·시기별 관리요령 등 교육을 강화하고, 전남농업기술원과 협조해 피해지역 왕우렁이의 월동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왕우렁이 유입 경로를 파악, 농수로 차단망 설치를 통한 차단 기술 실증 실험을 추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지속적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7월 한 달을 왕우렁이 일제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집중 수거

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영암군 학산면 친환경벼 집적화단지 일원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계해 친환경농업인·마을주민 100여 명과 농경지와 배수로 주변에서 서식하는 왕우렁이 2300kg를 수거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에는 친환경벼 재배농가 등에 도 예비비 1억 5000여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2000여만 원(도비 30%, 시군비 70%)을 투입해 왕우렁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자재를 긴급 지원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왕우렁이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이앙 전 논 고르기, 중간 물떼기시 물길 만들기과 수거, 겨울철 깊이갈이, 동계작물 재배 등 농가 관리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왕우렁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월동 실태조사와 우심지구를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피해 예방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해수욕장 58개소 안전 실태점검

전남도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58개소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점검 진행 및 해파리 모니터링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점검 기간은 오는 8월18일까지 4주간으로, 최근 집중호우로 훼손된 안전시설

물 정비 여부, 안전시설 및 인력 등 안전관리체계, 위험요소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난 23일 해수욕장 불청객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발

령 홍보, 해파리 피해 예방 대책, 쏘임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대응체계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 강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 29억원을 들여 안전요원 300여명 채용, 인명구조선·구명보트 등 안전장비 4000여개 확보, 해파리 구제, 편의시설 정비, 수질·환경조사 등도 추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